

남성중심 벗어나 여성 시선으로 본 여성 이야기

광주여성가족재단 창립 10주년 특별전 '여성:기쁨과 슬픔'...내년 3월 17일까지 해방~현재까지 광주 여성 역사 한눈에 강민지·박유선·한미경 작가 등 참여

전기밥솥, 버스·지하철, 은행 ATM 기기 등에서 흘러 나오는 안내 음성엔 모두 여성의 목소리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적 공공서비스까지 여성은 우리 일상을 깊숙히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어져왔다. 최근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하 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전 '여성:기쁨과 슬픔'(2022년 3월17일까지)을 준비했다.

지난 15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찾은 재단 3층 'Herstory' 전시관은 오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1전시실과 2전시실은 여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고, 3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은 여성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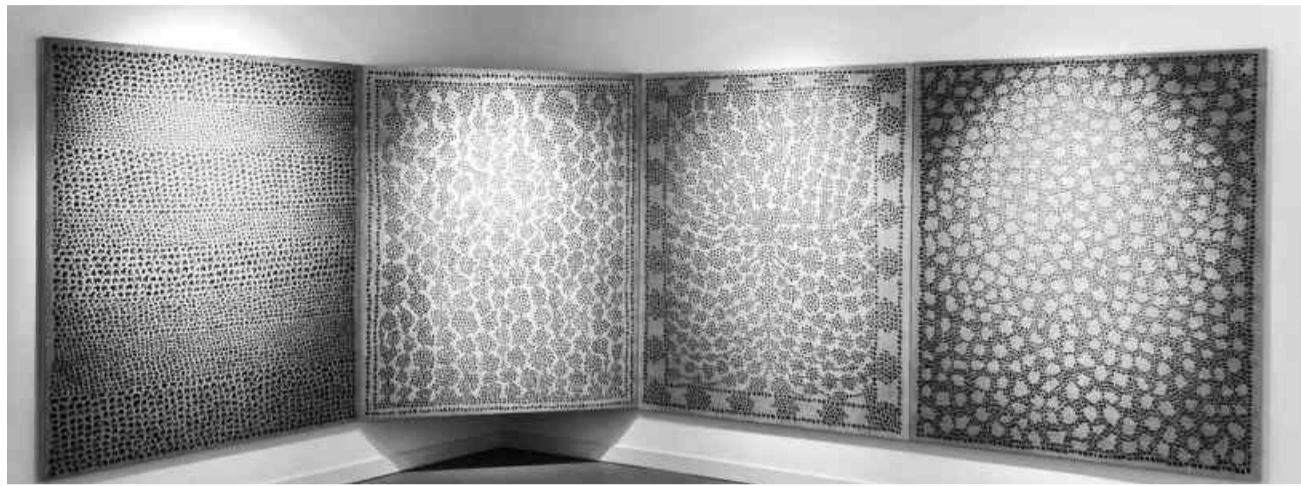
먼저 1전시실은 해방 이후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역의 여성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목은 '광주 여성의 발자취'로 연표와 사진으로 구성된 지역 여성사를 가늠할 수 있다.

2전시실은 인체물, 사진, 문구 등을 오려 붙인 콜라주 벽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는 '성 격차 108위, 임금차 OECD 1위', '여성가족부 섯다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ME TOO', '#우리는 여전히 말한다' 등 여성과 관련한 이슈들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관람객이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캡슐이 든 뽑기기도 놓여있다. 관람객은 전시관과 북카페 공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동전을 넣어 캡슐을 뽑으면 에코백, 컵, 담요 등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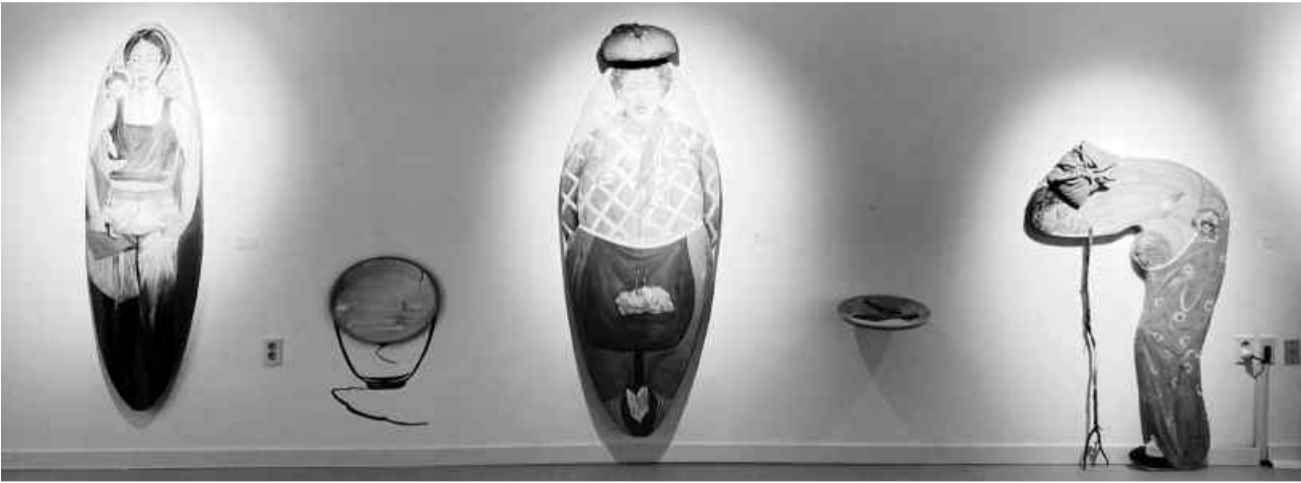
3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은 강민지·박유선·강지수·한미경·박화연 등 여성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강민지 작가는 약 7분짜리 영상작품 'Before&After'을 통해 성형수술과 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조명한다. 강 작가는 한 여성의 성형 전과 후의 모습이 담긴 지하철 안 성형 광고 전단지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 전단지 속 인물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보였고 강 작가는 '이 둘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강 작가는 성형수술, 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BEFORE, AFTER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작품을 통해 찾아본다.

박유선 작가의 'BLINDNESS'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과 프레임에 관한 작품이다. 허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서서히 점령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하나의 허상에 달아간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0주년 특별전 '여성:기쁨과 슬픔'이 '히스토리'에서 진행중이다. 강지수 작가의 '성소-서정의 자리'.



한미경 작가의 '여성의 시대적 일기장'

강지수 작가는 엄마의 자궁을 모티브로 만든 '성소-서정의 자리'를 전시중이다. 두 벽에 걸쳐 전시된 521.2cm×162.2cm 크기의 작품은 압도적이다. 강 작가는 어머니의 상징이자 개체에 영양을 주는 생명의 성소인 '자궁'을 분홍색으로 표현했으며, 이 안에는 유전자와 세포들이 담겨있다. 캔버스 위 빛으로 지우고 덮은 흔적, 굵어낸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 채워진 물감 자국들은 생명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가 사라지고 지워지는 것은 과거를, 형성되고 생성중인 이미지는 현재를 나타낸다.

박화연 작가는 '돌아봄, 돌봄'을 주제로 두 개의 영상작품을 제작했다. '노크: 안녕을 묻는다'는 여성, 노인, 장애를 가진 아이,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정, 취업난-갑질에 시달리며 절망하는 청년 등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 작가는 걷는 발, 내미는 손, 안부를 묻는 입술과 신체 등을 포착하며 떠나

간 존재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두에게 '안녕'을 묻는다.

'느린 발 느린 손'은 어머니를 비롯해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한 여성'의 모습과 그녀가 전하는 '말'을 통해 오래도록 반복되어 온 노동의 시간을 반추해본다.

한미경 작가는 한 여성의 초년, 중년, 노년의 모습을 담은 '여성의 시대적 일기장'을 선보이고 있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가장 왼쪽 한 초년 여성은 아이를 업고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가운데 중년 여성은 머리에 짐을 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마지막 노년 여성은 허리가 굽은채 지팡이를 짚고 있어 세 인물을 통해 여성의 인생을 표현했다. 관람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문의 062-670-0500.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윤평현 전남대 명예교수 '...국어의미론 강의' 펴내

한국어 의미론 연구를 대표하는 국어학자가 정년퇴임 후 2권의 전문 서적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윤평현 전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학부생들의 기본 학습서인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강의'를 펴냈다.

이전에 윤 교수는 지난해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한 전문가용으로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을 발간한 바 있다.

윤평현 교수는 지난 2008년에는 '국어의미론', 2013년에는 '국어의미론 강의'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전문 서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각각 18쇄와 21쇄를 인쇄할 만큼 국어학 연구자의 필독서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어의미론'은 언어 및 국어학 전문 출판사의 명저명장 프로그램에서 '브라운 스테디'로 지정받기도 했다.

윤 교수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연구 동향이 반영된 새로운 연구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년간의 집필 끝에 새로운 내용으로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

한편 윤 교수는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과 한국어미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국어정책심의위원장,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인문학 원로회의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시인 34명 작품 오디오북·점자도서 제작

전남문화재단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학 콘텐츠 발행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21년도 전남문화예술회관사업에 선정된 시인 34명의 작품을 오디오북과 점자도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독서인구가 증가하고 도서 콘텐츠 역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도서출간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역 문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전문 성우를 통해 제작된 시 68편은 오디오북 유통채널인 '네이버 오디오클럽'을 포함한 3개 채널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하다.

함께 발간된 점자도서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일반문자의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남 예술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점자도서관 38개소에 기증된다. 문의 061-280-582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시는 아프거나 슬플 때 소통의 기폭제”

여수 출신 김미순 시인 두번째 시집 '태산목 그대' 펴내

시는 아플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더 빛을 발한다. 시인이 겪었던 외로움과 쓸쓸함은 다른 이에게 소통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때의 시는 마음의 대화, 공감의 순간으로 전이된다.

여수 출신 김미순 시인은 한때 국어교사였다. 그러나 몸이 아파 명예퇴직을 한 뒤로 틈틈이 시를 썼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로 제자들이 그리워 꿈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교실 문을 열었다. 이번엔 시인이 펴낸 두 번째 시집 '태산목 그대'(시와 사람)

는 아픈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쓴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시인은 직접 꽃과 새에 대한 애정을 그림으로 그렸다. 작품 곳곳에서 만나는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꽃 그림은 시인의 내면을 상징한다.

“이름처럼 크다/ 이름처럼 푸르다/ 당당한 꽃/ 내 곁에 있다 // 더 이상 말로 이를 수 없는/ 내 남편”

표제시 '태산목'은 시인의 남편을 그렇게 의인화한 작품이다. 이름처럼 푸르며 이름처럼 큰 이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잔

잔한 어조로 노래한다. 이처럼 시편들은 간결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군더더기 없는 표현들은 일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내면을 고스란히 반추한다. '틈', '수선화', '도둑가시꽃'에서 보이는 정갈한 시어들은 깊이 아파본 이가 새롭게 깨닫는 삶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시인은 “이 시집 표지와 각 부에 그려진 그림이 내 외로움의 성과물이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시인은 시집 '아주 가깝', 산문집 '봄 배달 왔습니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